베트남

Vietnam

5. 일본식품회사의 베트남 투자 증가

하노이지사

주요내용

▶ 일본, 주력 수출시장 베트남에 대한 관심 증가

- 2016년 베트남은 일본의 농식품 수출국 5위에 해당하는 주력시장이다. Dau tu(Investment) newspaper에 따르면,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일본 식품회사들의 베트남 투자 및 기업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최근에는 일본 20개 기업의 대표단이 호치민 방문을 통하여 식품가공 등 투자기회를 탐색하기도 했다. 일본무역협회(JETRO,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)에 따르면, 일본기업은 특히 베트남 남부지방인 호치민, 바리아-붕따우(Ba Ria-Vung Tau), 동나이(Dong Nai)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.

▶ 일본식품업계의 베트남 투자도 증가

- 올해 초, Japan Best Foods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(Dong Nai) 내 Long Duc 공업단지의 육제품 가공 및 보존에 1,400만USD를 투자했다.
- 쿨재팬펀드(Cool Japan Fund Inc.)와 K-Line Group이 공동 투자한 CLK Cold Storage Co.,Ltd는 1,800만USD를 베트남 남부 빈즈엉(Binh Duong) 냉장시설 건설에 투입했다.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콜드체인 시설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.

▶ 편의점, 일식 레스토랑 등을 통해 베트남 진출확대

- 일본 식품회사는 슈퍼마켓, 편의점, 레스토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베트남에 일본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. 베트남 내에도 일본계 편의점인 패밀리마트(FamilyMart)와 미니스톱(Ministop)이 증가하고 있으며, 1,000개 이상의 일본 레스토랑이 영업 중이다.

* 참고자료 : Vietnam Plus, 「Japanese food companies increase presence in Vietnam」(2017.8.2.)
Vietnam News Agency, 「Japanese food companies increase presence in Vietnam」(2017.8.2.)

시사점

일본기업의 베트남 지사 설립을 통한 현지화전략은 일본 식품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.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 일본계 유통채널이 확대되고 있어, 일본식품의 베트남 진출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.